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2/4분기 미국(1.4%)과 중국(1.8%)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미국 0.6%p, 중국 0.6%p)하였으나 유로지역(1.2%)과 일본(0.7%)은 하락(유로 지역 0.9%p, 일본 1.4%p)함.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중국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6을 기록함.
 - 미국, 일본, 유로지역은 하락한 반면, 중국은 상승함.
- 2016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0.3%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3.0%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하강 국면을 보였으며, 경기 선행지수를 볼 때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2/4분기 미국과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하락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로 2016년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연율) 성장함.
 - 유로지역은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1.2%(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5〉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0.7%(연율) 성장에 그침(〈표 13〉 참조).
 - 중국은 수출입 감소폭 둔화로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8%를 기록함(〈표 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3.4	3.2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9	2.1	n.a.	2.3		1.6		1.5	
신흥국 ¹⁾	4.6	4.0	n.a.	4.3		4.2		4.3	
미국 ²⁾	2.4	2.6	2.3	2.0	2.6	2.0	0.9	0.8	1.4
유로지역 ³⁾	1.1	2.0	1.7	3.3	1.4	1.5	1.8	2.1	1.2
일본 ⁴⁾	0.0	0.5	2.2	5.0	-1.9	2.1	-1.7	2.1	0.7
중국 ⁵⁾	7.3	6.8	1.7	1.6	1.8	1.8	1.5	1.2	1.8

주: 1)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9).

3) Eurostat(2016, 10).

4) 일본 내각부(2016, 9).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7).

■ 2016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6을 기록함.

○ 미국은 주택투자 부진 등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1을 나타냄(〈표 5〉 참조).

○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일본은 일본 경제성장세 둔화 지속 전망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6으로 집계됨.

○ 중국은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으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98.9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100.2	99.7	100.1	100.0	99.9	99.6	99.4	99.4	99.6
선진국 ³⁾	100.5	100.2	100.5	100.5	100.3	100.1	99.9	99.8	99.7
미국	100.8	100.1	100.8	100.6	100.3	99.9	99.4	99.2	99.1
유로	100.3	100.5	100.2	100.4	100.5	100.5	100.6	100.5	100.3
일본	100.5	100.2	100.1	100.2	100.4	100.2	99.9	99.7	99.6
중국	100.4	99.2	99.9	99.6	99.4	99.0	98.7	98.6	98.9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보다 0.3%p 상승한 0.3%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7%를 나타내었지만,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0.3%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2.8	1.5	3.3	2.9	1.7	1.1	0.5	0.0	0.3
선진국	2.7	2.7	3.4	3.7	3.3	2.4	1.7	1.3	0.7
신흥국	2.9	-0.1	3.2	1.7	-0.4	-0.7	-1.1	-1.6	-0.3

주: 1)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높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보다 상승한 1.0%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와 동일한 4.8%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46.3%, 35.6% 상승하였고, CRB 상품지수²⁾도 10.6% 높아짐.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5			2016			2015			2016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3.2	2.7	2.6	2.8	3.0	두바이 현물지수	50.1	48.4	38.7	31.1	45.5
선진국	1.4	0.6	0.6	0.8	1.0	WTI 현물지수	49.3	47.1	41.8	35.2	47.8
신흥국	4.7	4.7	4.6	4.8	4.8	CRB 상품지수 ²⁾	208.1	201.8	186.9	165.9	183.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 10); 한국은행; Bloomberg.

2)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6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를 기록함.
-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높아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낮아짐.
-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높아짐.
-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은 소폭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감소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4분기보다 0.6%p 상승한 1.4%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7%p 상승한 4.3%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주택투자 둔화 등으로 -7.9%를 나타내며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짐.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5%p 상승한 1.8%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0.2%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3.3%p 하락한 -1.7%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4	2.6	2.3	2.0	2.6	2.0	0.9	0.8	1.4
민간소비	2.9	3.2	4.6	2.4	2.9	2.7	2.3	1.6	4.3
재화	3.9	4.0	5.1	2.7	4.3	4.2	2.1	1.2	7.1
서비스	2.3	2.8	4.3	2.3	2.2	2.0	2.3	1.9	3.0
민간투자	4.5	5.0	2.6	9.9	1.0	2.0	-2.3	-3.3	-7.9
설비	6.0	2.1	-1.1	1.3	1.6	3.9	-3.3	-3.4	1.0
주택	3.5	11.7	11.4	13.3	14.9	12.6	11.5	7.8	-7.7
수출	4.3	0.1	4.5	-5.8	2.9	-2.8	-2.7	-0.7	1.8
수입	4.4	4.6	11.2	5.6	2.9	1.1	0.7	-0.6	0.2
정부지출	-0.9	1.8	-0.4	2.6	3.2	1.9	1.0	1.6	-1.7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낮아짐.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높아진 1.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1.2 낮아진 94.8을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높아짐.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0.7%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2.7% 상승한 188.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4.1	2.3	0.6	-0.7	1.5	0.9	0.3	-0.1	1.5	0.1	-0.3
소비자신뢰지수 ²⁾	86.9	98.0	92.7	101.4	96.2	98.3	96.0	96.0	94.8	96.7	101.8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7.8	10.7	3.3	-6.7	17.2	0.0	-1.8	1.5	0.7	1.4	-5.8
주택가격지수 ⁴⁾	170.7	179.3	172.9	173.7	178.8	182.2	182.5	183.2	188.3	190.9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은 소폭 하락함.
-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1%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75.3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한 51.8을 나타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123.6을 기록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0.3	0.9	-0.5	-0.7	0.4	-0.8	-0.4	-0.1	0.6	-0.5
설비가동률 ²⁾	77.6	77.5	78.6	77.7	76.6	76.6	75.8	75.4	75.3	75.9	75.5
ISM제조업PMI	55.6	51.3	56.6	53.2	52.6	51.0	48.6	49.8	51.8	52.6	49.4
경기선행지수 ³⁾	117.2	122.2	119.9	120.6	122.2	122.7	123.4	123.0	123.6	124.3	124.1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 및 물가⁴⁾〉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감소함.
- 비농업 취업자는 43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4만 8,000명 감소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6만 7,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000명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4.9%를 기록함.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4)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0%를 나타내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9%를 나타내었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5%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	6.2	5.3	5.7	5.6	5.4	5.2	5.0	4.9	4.9	4.9	4.9
포괄적 실업률(u-6) ²⁾ (%)	12.0	10.5	11.4	11.1	10.7	10.2	9.9	9.8	9.7	9.7	9.7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301.5	274.4	82.3	57.0	75.2	57.6	84.6	58.7	43.9	25.2	16.7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0.8	27.8	29.0	28.8	27.8	27.3	27.2	26.9	26.7	26.0	26.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6	0.1	1.3	-0.1	0.0	0.1	0.5	1.1	1.0	0.8	1.1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7	1.7	1.8	1.8	2.0	2.2	2.2	2.2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3.3	0.8	-3.2	-3.3	-3.3	-3.3	-1.8	-1.9	-2.2	-2.1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2.0	2.0	1.9	2.1	2.2	1.8	1.6	1.5	1.0	1.2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높아진 1.8%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높아짐.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높아진 1.8%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0.8%p 하락한 9.7%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4.9%p 상승한 -3.6%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6.9%p 상승한 -6.6%를 나타냄.

〈표 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¹⁾	7.3	6.8	1.7 (7.2)	1.6 (7.0)	1.8 (7.0)	1.8 (6.9)	1.5 (6.8)	1.2 (6.7)	1.8 (6.7)	n.a.	n.a.
고정자산투자 ²⁾	16.8	11.4	15.8	13.7	11.6	10.8	10.1	10.5	9.7	8.1	8.1
수출 증가율 ³⁾	5.5	-1.1	8.7	9.9	-2.8	-6.3	-5.2	-8.5	-3.6	-4.4	-2.8
수입 증가율 ³⁾	0.9	-14.2	-1.6	-17.6	-13.3	-14.1	-11.6	-13.5	-6.6	-12.5	1.5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0.2%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1.2를 기록함.

〈표 10〉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7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0	10.6	11.7	10.2	10.2	10.7	11.1	10.5	10.2	10.2	10.6
소비자신뢰지수	104.4	105.9	104.9	107.5	107.7	104.7	103.9	102.8	101.2	n.a.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높아짐.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1을 나타냄.

〈표 11〉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2	6.0	7.6	5.6	6.3	5.9	5.9	6.8	6.1	6.0	6.3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²⁾	50.7	49.9	50.4	49.9	50.2	49.8	49.7	49.5	50.1	49.9	50.4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의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⁵⁾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와 동일한 2.1%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1.9%p 상승한 -2.9%를 기록함.

〈표 12〉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4	1.5	1.2	1.4	1.7	1.5	2.1	2.1	1.8	1.3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5.2	-2.7	-4.6	-4.7	-5.7	-5.9	-4.8	-2.9	-1.7	-0.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5)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 고에서는 생략함.

다. 일본경제

- 2016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2%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와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낮아짐.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윤년효과로 높아진 1/4분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0.5%p 낮아진 0.2%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1%를 나타냄.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한 5.0%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고, 공공투자는 FY16 예산 조기 시행 등으로 전분기대비 2.4%p 높아진 2.6%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엔화 강세, 구마모토 지진(4월)에 따른 자동차생산 등 일부 공장의 조업중단,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부진 등으로⁶⁾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5%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0.0%를 나타냄.

6) 국제금융센터(2016. 8. 15), “일본 금년 2분기 연율 0.2% 성장”, Issue Briefing.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0.0	0.5	0.6 (2.2)	1.2 (5.0)	-0.5 (-1.9)	0.5 (2.1)	-0.4 (-1.7)	0.5 (2.1)	0.2 (0.7)
민간소비	-0.9	-1.2	0.6	0.1	-0.6	0.4	-0.8	0.7	0.2
설비투자	3.1	1.5	-0.1	3.1	-1.0	0.8	1.2	-0.6	-0.1
주택투자	-5.3	-2.5	0.1	2.6	1.7	1.1	-0.5	-0.1	5.0
공공투자	0.4	-2.5	1.1	-1.4	0.9	-1.8	-3.2	0.2	2.6
수출	8.3	2.8	3.3	1.7	-4.2	2.6	-0.9	0.1	-1.5
수입	7.2	0.3	1.2	1.1	-1.8	1.2	-1.1	-0.5	0.0
정부지출	0.1	1.2	0.4	0.2	0.4	0.2	0.8	0.9	0.1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9).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0.2%를 나타냄.
-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분기보다 2.4%p 상승한 0.1%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41.2로 집계됨.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6%p 낮아진 4.9%를 기록하였고,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9.2% 감소함.

〈표 14〉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1	-1.2	0.8	1.1	-1.3	-1.0	0.0	-1.0	0.2	-0.4	1.5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4	1.0	-1.6	0.1	1.1	-0.2	-2.3	0.1	1.5	-1.1
소비자신뢰지수 ³⁾	39.3	41.3	38.9	40.6	41.5	41.0	42.2	41.4	41.2	41.3	42.0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9.0	1.9	-13.8	-5.4	7.6	6.2	-0.7	5.5	4.9	8.9	2.5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0	4.1	1.3	4.1	3.0	-6.5	2.6	6.7	-9.2	4.9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⁷⁾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한 3.2%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36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짐.
- 2016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4%를 나타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5%임.

〈표 15〉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3.6	3.4	3.5	3.5	3.4	3.4	3.3	3.2	3.2	3.0	3.1
유효구인배율 ¹⁾ (배)	1.09	1.20	1.12	1.15	1.18	1.22	1.25	1.29	1.36	1.37	1.37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7	0.8	2.6	2.3	0.5	0.1	0.3	0.0	-0.4	-0.4	-0.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9	1.0	2.1	2.1	0.5	0.8	0.8	0.6	0.5	0.3	0.2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라. 유로지역⁸⁾경제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0.3%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실업률은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주요국과 남유럽은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0.3%를 기록함(〈표 16〉과 〈표 19〉 참조).
 -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분기보다 각각 0.3%p, 0.8%p, 0.3%p 하락한 반면, 영국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하였고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주요국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0%를 나타내었고 정부지출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0.1%를 기록함.
 - 유로지역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1.1%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0.4%를 나타냄.

8)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6〉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1.1	2.0	0.4 (1.7)	0.8 (3.3)	0.4 (1.4)	0.4 (1.5)	0.4 (1.8)	0.5 (2.1)	0.3 (1.2)
민간소비	0.8	1.8	0.5	0.4	0.4	0.5	0.3	0.6	0.2
고정자본투자	1.5	3.1	0.5	1.6	0.1	0.5	1.4	0.4	0.0
수출	4.4	6.3	1.5	2.5	1.2	0.4	0.7	0.0	1.1
수입	4.8	6.3	1.4	2.4	0.7	1.2	1.4	-0.1	0.4
정부지출	0.6	1.4	0.1	0.5	0.4	0.4	0.6	0.6	0.1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6. 10).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3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낮아진 0.2%를 나타냄.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7.8로 마이너스 지수가 지속됨.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1/4분기보다 1.1%p 하락한 -0.3%를 나타냄.

〈표 17〉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지역 ESI ²⁾	101.5	104.2	100.7	102.5	103.7	104.5	106.2	104.0	104.3	104.5	103.5
소매판매 증가율 ³⁾ (%)	1.4	2.7	1.0	1.0	0.7	0.6	0.2	0.7	0.2	0.3	0.0
소비자신뢰지수 ⁴⁾	-10.2	-6.2	-11.3	-6.2	-5.2	-7.0	-6.4	-8.3	-7.8	-7.9	-8.5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9	2.0	0.6	1.4	0.1	0.4	0.1	0.8	-0.3	-1.1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유로지역 실업률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유로지역 국가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4%를 기록하였고, 북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6.7%이었음.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7.1%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6.6%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6년 2/4분기 유럽 국가⁹⁾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주요국과 남유럽은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낮아진 0.1%를 나타내었고, 북유럽의 경우는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1.2%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7%를 나타내었고, 남유럽의 경우도 0.1%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8〉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5년 4/4	6.6	6.8	7.8	17.3	0.2	0.8	-0.5	0.1
2016년 1/4	6.5	6.7	7.4	17.0	0.2	1.1	-0.7	-0.1
2016년 2/4	6.4	6.7	7.1	16.6	0.1	1.2	-0.7	-0.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6).

9)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19〉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1.6	1.7	0.8	0.2	0.5	0.2	0.4	0.7	0.4
민간소비	0.9	2.0	0.8	0.4	0.4	0.6	0.4	0.3	0.2
고정자본투자	3.4	1.7	1.1	0.5	0.1	0.1	1.7	1.7	-1.5
수출	4.1	5.2	2.0	1.0	1.6	0.0	-0.7	1.6	1.2
수입	4.0	5.5	2.7	1.4	0.4	1.1	0.6	1.3	-0.1
프랑스 GDP	0.6	1.3	0.2	0.6	0.0	0.4	0.4	0.7	-0.1
민간소비	0.7	1.5	0.4	0.5	0.1	0.5	0.0	1.1	0.0
고정자본투자	-0.3	1.0	-0.1	0.5	-0.3	0.7	1.2	1.3	-0.2
수출	3.3	6.1	2.8	1.7	1.7	-0.2	0.6	-0.4	0.2
수입	4.7	6.6	1.7	2.2	0.3	1.7	2.2	0.2	-1.8
이탈리아 GDP	0.1	0.7	-0.1	0.3	0.2	0.2	0.2	0.3	0.0
민간소비	0.4	1.5	0.4	0.2	0.7	0.6	0.3	0.4	0.1
고정자본투자	-3.0	1.3	-0.1	1.0	0.0	0.6	0.9	0.7	0.2
수출	2.9	4.3	1.7	1.4	1.2	-1.3	1.7	-1.3	2.4
수입	3.3	6.0	0.3	3.4	1.3	-0.1	1.4	-0.7	1.4
스페인 GDP	1.4	3.2	0.7	0.9	1.0	0.8	0.8	0.8	0.8
민간소비	1.6	2.9	0.8	0.8	0.8	1.1	0.7	1.0	0.7
고정자본투자	3.8	6.0	1.4	1.6	2.3	1.3	1.1	0.3	1.3
수출	4.2	4.9	0.2	1.0	1.4	1.8	0.9	-0.4	4.3
수입	6.5	5.6	-0.2	2.6	1.5	3.1	0.3	0.4	2.7
영국 GDP	3.1	2.2	0.8	0.3	0.5	0.3	0.7	0.4	0.7
민간소비	2.2	2.5	-0.2	0.8	0.7	0.9	0.4	0.7	0.9
고정자본투자	6.7	3.4	0.7	1.7	0.9	0.9	-1.3	-0.1	1.6
수출	1.5	4.5	4.0	2.2	-1.1	-0.3	4.3	0.1	-1.0
수입	2.5	5.4	2.8	3.4	-1.7	0.5	2.6	0.2	1.3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10).

2. 국내경제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3.2%를 기록함.
 - 건설투자(10.8%)가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소비(3.3%)를 비롯한 일부 내수지표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설비투자(-2.7%)의 부진이 지속됨.
- 2016년 2/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내수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2.7%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10.8% 증가함.
 - 산업생산은 수출회복 지연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광공업(1.0%) 생산 부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감.
 - 총취업자 수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3.8%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99.7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해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 대외거래는 수출이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저유가가 지속되며 10.3% 감소한 결과 무역수지는 26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침.
- 2016년 2/4분기 경기동향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100.4, 100.2를 기록함.
- 2016년 2/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가. 경제성장

-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개선 동력은 미약한 상황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3.2%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¹⁰⁾를 앞둔 가수요 및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3% 증가함(〈표 21〉 참조).
 - 설비투자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기계류 감소세가 지속되며 2.7% 감소함(〈표 22〉 참조).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중심으로 10.8% 증가함(〈표 22〉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2.9% 증가함.¹¹⁾
 - 수출은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중심으로 1.9%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3.3% 증가함.¹²⁾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4 (0.7)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2.8 (0.5)	3.2 (0.8)
민간소비	1.4	1.1	1.7	1.5	1.7	2.2	3.3	2.2	2.2	3.3
설비투자	4.4	4.4	6.0	5.8	5.1	6.7	3.9	5.3	-4.5	-2.7
건설투자	2.3	-1.7	1.1	0.9	1.0	5.6	7.5	3.9	9.6	10.8
지식생산물투자	5.8	1.7	5.4	2.0	0.9	1.1	2.1	1.5	0.9	2.9
수출	1.3	0.7	2.0	0.5	-0.4	0.5	2.5	0.8	0.7	1.9
수입	1.7	-0.4	1.5	2.1	1.6	3.1	6.1	3.2	1.9	3.3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0)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16년 6월 말 종료됨.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2), “201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2), “201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가계의 심리위축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¹³⁾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4%, 6.0%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앞둔 가수요로 인해 승용차 판매를 중심으로 크게 늘며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함.
- 7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며, 8월에는 폭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휴대폰 중심으로 6.6% 증가함.¹⁴⁾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7.4%, 2.2% 증가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폭염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5.5%, 7.0% 증가함.

〈표 21〉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소매판매	2.2	3.4	3.6	6.1	3.9	4.6	6.2	4.4	6.0
내구재	7.9	8.9	7.7	16.1	10.2	5.6	11.1	0.7	6.6
* 승용차	17.6	18.8	17.5	29.8	21.3	8.9	17.0	-11.6	-5.8
준내구재	-2.2	-1.3	-3.4	1.5	-1.2	2.7	4.6	7.4	2.2
비내구재	0.8	2.4	4.0	3.0	2.5	4.9	4.2	5.5	7.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3) 〈표 25〉 소비자심리지수 참조.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31), '16.7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30), '16.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과 경기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심리가 미약한 상황으로 국내 기계수주 부진과 낮은 제조업 평균가동률¹⁵⁾이 이를 뒷받침하며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함.¹⁶⁾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부문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침.

- 7월 설비투자지수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함.¹⁷⁾

- 8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함.¹⁸⁾

○ 2016년 2/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¹⁹⁾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함.

- 7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기·영상·음향 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함.²⁰⁾

- 8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장비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함.²¹⁾

15) 제조업 평균가동률(통계청): ('16.4) 71.3, ('16.5) 73.1, ('16.6) 72.2, ('16.7⁹⁾) 73.8, ('16.8⁹⁾) 70.4

16) 국회예산정책처(2016. 8), "NABO 경제동향&이슈".

17)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18)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19)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0)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1)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표 22〉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설비투자	5.8	5.1	6.7	3.9	5.3	-4.5	-2.7		
설비투자지수	9.2	4.5	10.2	1.6	7.8	-7.1	0.8	-12.3	3.6
기계류	11.5	3.9	5.3	-7.8	1.9	-12.7	-7.5	-11.1	8.2
운송장비	3.1	6.5	22.2	26.5	24.6	9.4	21.0	-14.9	-7.0
국내기계수주 ³⁾	-3.0	14.9	-27.1	6.9	1.6	0.9	-2.9	0.4	-3.3
건설투자	0.9	1.0	5.6	7.5	3.9	9.6	10.8		
건설기성(불변)	-1.7	-3.8	6.2	8.0	6.3	14.8	19.2	19.8	23.6
건축	-0.2	-3.5	10.8	16.3	22.7	22.1	26.5	21.9	29.6
토목	-4.3	-4.3	-1.9	-4.5	-14.6	2.0	6.4	15.5	11.9
국내건설수주(경상)	57.4	49.1	50.4	40.1	40.9	13.8	-6.3	45.7	54.6
건축	89.5	49.3	42.5	37.8	61.0	13.1	2.5	35.3	30.9
토목	1.7	48.3	83.6	45.9	3.2	16.0	-32.8	93.9	200.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청약 수요 확대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수주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물건설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함.²²⁾

○ 건설기성²³⁾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함.

- 7월과 8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9.8%, 23.6%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토목 부문에서 큰 폭으로 줄어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 7월과 8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 부문과 도로·교량, 기계설치 등 토목부문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45.7%, 54.6% 증가함.²⁴⁾

22) 국회예산정책처(2016. 7), “NABO 경제동향&이슈”.

23)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4)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 2016년 2/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이 수출 부진 속에 자동차 파업 및 조선 및 철강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회복이 제한적인 반면, 서비스업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기저효과에 따라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 2016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철강·조선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ICT 부문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 7월 광공업 생산은 ICT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자동차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조업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에 그침.
 -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높은 2.3%를 기록하였으나 조업일수 증가(2일) 및 기저효과 감안 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자동차업계 파업²⁵⁾ 영향이 본격화됨.²⁶⁾
- 2016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개별소비세 완화 정책 종료 및 지난해 메르스 사태 기저효과와 소멸 등에 주로 기인하며 전년동월대비 3.0% 증가에 그침.²⁷⁾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건설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금융 및 보험업(7.7%)과 부동산 및 임대업(6.5%)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함.²⁸⁾

25) 8월 중 현대·기아·GM 등 자동차 3사 파업으로 약 6.6만 대 생산차질 발생(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 9. 30), '16.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6) 한국개발연구원(2016. 10), KDI 경제동향.

27) 한국개발연구원(2016. 9), KDI 경제동향.

28) 한국개발연구원(2016. 10), KDI 경제동향.

〈표 23〉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전산업생산 ³⁾	1.0	1.0	2.1	2.4	1.7	2.3	3.6	3.4	5.0
광공업	-1.1	-1.3	-0.1	-0.1	-0.6	-0.2	1.0	1.6	2.3
제조업	-1.2	-1.3	-0.3	0.1	-0.6	-0.4	1.1	1.7	2.3
자동차	-4.1	2.6	4.7	1.4	1.0	-0.2	-3.4	-6.0	-12.1
ICT	-1.5	-2.2	2.4	6.6	1.3	-0.2	6.8	19.5	8.0
서비스업	2.7	2.7	2.9	3.3	2.8	2.8	3.7	3.0	4.7
도매 및 소매업	0.4	0.9	1.4	4.2	1.7	2.8	4.2	3.3	4.9
운수업	3.9	-0.3	0.7	1.1	1.4	2.1	4.2	7.9	3.7
숙박 및 음식점업	-0.7	-2.8	-3.5	-1.3	-2.0	-0.8	1.9	3.0	1.3
금융 및 보험업	8.7	11.4	10.1	6.2	9.0	6.5	4.3	2.1	7.7
부동산 및 임대업	5.4	10.2	11.1	5.9	8.1	3.3	-0.5	2.0	6.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며²⁹⁾,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8%를 기록함.

○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1%, 1.5% 증가율을 보임.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인구감소세 확대³⁰⁾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증가³¹⁾로 3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1.4% 증가함.

29)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0) 청년 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16. 4) -4.7, ('16. 5) -5.0, ('16. 6) -5.8, ('16. 7) -6.4, ('16. 8) -6.8(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3), "2016년 8월 고용동향").

31) 청년경제활동참가율(%): ('15. 4) 45.8, ('15. 5) 46.0, ('15. 6) 46.1, ('15. 7) 46.8, ('15. 8) 45.7 ('16. 4) 46.9, ('16. 5) 47.3, ('16. 6) 48.0, ('16. 7) 48.1, ('16. 8) 47.4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61.2%, 61.0%를 나타냄.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3.8%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3.5%, 3.6%를 나타냄.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10.3%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9.2%, 9.3%를 나타냄.

■ 2016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정책효과³²⁾ 등으로 고용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부진이 더욱 심화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7.3%, 4.5%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³⁾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7월과 8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³⁴⁾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1.6%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서비스업 생산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각각 전년동월대비 2.3%, 2.6% 증가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1%, 3.9% 증가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0.7%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1.4%, 2.4% 증가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0.2%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1.4%, 0.3% 증가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3.4%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3.6%, 3.3% 증가함.

32)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016년 6월 말 종료), 임시공휴일(2016. 5. 6) 지정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6. 15), “2016년 5월 고용동향”).

33) 제조업 포함.

34)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증감(동월비, 만 명): (경남)+2.9, (울산)+0.8, (전남)+0.1, (부산)+1.0(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3), “2016년 8월 고용동향”).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¹⁾	1.4	1.2	1.2	1.5	1.3	1.1	1.1	1.1	1.5
청년취업자 ¹⁾	0.8	2.3	1.3	2.6	1.8	1.0	2.1	2.2	1.4
고용률 ²⁾	59.0	60.7	60.9	60.5	60.3	59.1	60.8	61.2	61.0
실업률 ³⁾	4.1	3.8	3.4	3.1	3.6	4.3	3.8	3.5	3.6
청년 ⁴⁾ 실업률 ³⁾	10.3	9.9	8.4	8.0	9.2	11.3	10.3	9.2	9.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4	-7.7	-6.8	-7.6	-7.4	-4.9	-5.7	-7.3	-4.5
광공업	3.1	3.3	3.8	4.2	3.6	3.0	1.0	-1.3	-1.6
제조업	3.2	3.4	3.8	4.0	3.6	2.9	0.8	-1.4	-1.6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6	1.5	1.3	1.5	1.4	1.1	1.7	2.3	2.6
건설업	4.3	2.4	0.6	-1.0	1.5	-0.5	-1.5	0.1	3.9
도·소매, 음식, 숙박	2.5	2.2	0.8	-0.6	1.2	-0.9	0.7	1.4	2.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9	-0.1	1.7	2.3	0.7	1.5	0.2	1.4	0.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	1.3	1.6	3.1	1.8	2.5	3.4	3.6	3.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으로 인해³⁵⁾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0.4% 상승하며 낮은 상승세를 이어감.

○ 2016년 2/4분기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석유류 하락세가 이어지며 0.9% 하락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5% 하락함.

- 7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공업제품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함.³⁶⁾

35) 한국은행(2016.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2), “201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8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전기요금 한시 인하 효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함.³⁷⁾

○ 2016년 2/4분기 서비스물가는 2.2%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씩 상승함.

- 7월, 8월 중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상승세가 지자체 교통요금 인상효과 소멸에 따라 큰 폭으로 둔화되며 각각 1.9% 상승에 그침.³⁸⁾

■ 2016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99.7을 나타내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으며, 7월에는 101.0, 8월에는 102.0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미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표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2.0	102.3	101.3	104.0	102.4	99.3	99.7	101.0	102.0
소비자물가 상승률	0.6	0.5	0.7	1.1	0.7	1.0	0.9	0.7	0.4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7	-0.8	-0.9	-0.4	2.0	-0.6	-0.9	-0.7	-1.5
농축수산물	0.3	2.1	2.9	2.6	-0.2	4.5	2.0	0.2	1.0
공업제품	-0.4	-0.3	-0.2	0.0	-7.4	-0.6	-0.6	-0.5	-0.5
전기·수도·가스	-3.7	-8.0	-10.8	-7.1	1.8	-8.0	-7.0	-3.9	-12.6
서비스	1.6	1.6	2.0	2.2	2.5	2.4	2.2	1.9	1.9
집세	2.3	2.4	2.7	2.8	1.2	2.9	2.6	2.5	2.5
공공서비스	0.5	0.5	1.8	2.0	1.9	2.2	2.2	1.0	1.0
개인서비스	1.8	1.9	1.8	2.2	0.0	2.3	2.1	2.1	2.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3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2), “201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6년 2/4분기 수출은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2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0.3% 감소한 99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26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 수출이 5.4% 상승하였으나, 원료 및 연료(-20.4%), 경공업 제품(-0.8%), 중화학 공업품(-6.1%) 등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7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³⁹⁾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함.⁴⁰⁾
 - 8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⁴¹⁾ 수출물량 증가, 단가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함.⁴²⁾
-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3.4% 상승 전환하였고, 원자재는 원유, 가스, 석유제품, 철강 등의 단가 하락⁴³⁾으로 18.9%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본재 수입도 3.2% 감소함.
 - 7월 수입은 원자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함.
 - 8월 수입은 원자재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가 상승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함.⁴⁴⁾

39) 전년동월대비 1.5일 줄어듦.

4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8. 1), “2016년 7월 수출입 동향”.

41) 전년동월대비 2일 늘어남.

42) 조업일수 2일 증가, 수출물량(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섬유 등) 증가, 단가 회복(반도체, 평판DP,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수출입 동향”.

43) 〈표 4〉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7. 1),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44) 조업일수 2일 증가, 수출물량(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섬유 등) 증가, 단가 회복(반도체, 평판DP,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1), “2016년 8월 수출입 동향”.

〈표 26〉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3.5	0.5	-4.4	-1.3	-2.1	5.0	5.4	2.5	22.3
	원료 및 연료	-36.0	-28.2	-33.2	-36.0	-33.3	-31.3	-20.4	-13.2	-23.9
	경공업 제품	-5.3	-9.5	-10.0	-8.6	-8.4	-5.5	-0.8	1.8	11.3
	중화학 공업품	1.7	-4.6	-6.4	-9.8	-4.9	-13.0	-6.1	-11.3	4.3
	전체	-3.0	-7.3	-9.5	-12.0	-8.0	-13.6	-6.7	-10.4	2.6
	금액	1,334	1,351	1,282	1,300	5,268	1,152	1,260	410	401
수입	소비재	8.1	2.2	-1.8	0.5	2.1	-2.6	3.4	-8.6	7.8
	원자재	-29.5	-26.5	-32.7	-29.8	-29.6	-25.4	-18.9	-18.4	-5.2
	자본재	7.0	-0.9	3.7	-4.0	1.3	-7.6	-3.2	-8.5	5.9
	전체	-15.6	-15.6	-18.7	-17.8	-16.9	-16.1	-10.3	-13.6	0.7
	금액	1,118	1,105	1,080	1,063	4,365	937	991	334	350
무역수지		216.3	246.1	202.8	237.4	902.6	214.5	269.3	75.6	51.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대다수 지역으로부터 줄어듦.

-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의 경우 내수중심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였고, 對중동 수출은 중동지역의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22.0% 감소하였으며, 對EU 수출은 선주 인도연기 요청 등으로 10.1% 감소함.⁴⁵⁾
 - 7월 수출은 對중국 수출과 對EU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對미국 수출의 경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감소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그 외 주요지역으로 부터의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됨.⁴⁶⁾
 - 8월 수출은 對중국·미국·중동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對일본·ASEAN 수출이 증가로 전환됨.

4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7. 1),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4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8. 1), “2016년 7월 수출입 동향”.

○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하였으며, 대다수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세가 지속됨.

- 7월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로 전환되었고, 그 외 주요지역으로부터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이어감.
- 8월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동남아지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상승 전환함.

〈표 27〉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6.0	-2.7	-6.9	-10.5	-5.6	-15.7	-12.7	-9.3	-5.3
	ASEAN	14.2	-10.1	-7.1	-10.4	-11.5	-11.2	-1.2	-4.1	2.5
	미국	13.3	-1.0	-2.2	-10.0	-0.6	-3.3	-4.3	-14.4	-4.7
	EU	9.1	-8.5	-3.6	7.9	-6.9	6.6	-10.1	-4.8	-4.8
	중남미	5.8	-12.7	-23.9	-30.9	-14.6	-28.7	-17.1	-16.6	-16.1
	중동	5.8	-6.8	-17.2	-21.9	-12.6	-20.3	-22.0	-18.9	-7.5
	일본	4.9	-13.1	-26.6	-20.0	-20.5	-13.2	-14.0	-2.3	7.2
	전체	100.0	-7.3	-9.5	-12.0	-8.0	-13.6	-6.7	-6.7	-10.4
수입	중국	20.7	-4.1	2.5	-3.8	0.2	-9.5	-3.0	-8.1	3.0
	중동	15.7	-37.3	-46.0	-45.0	-42.5	-42.1	-30.4	-23.6	-11.8
	동남아	14.5	-13.9	-12.2	-10.4	-10.8	-8.4	-2.6	-8.2	9.6
	EU	13.1	-5.2	-11.0	-9.4	-8.3	-11.7	-10.5	-18.0	-0.4
	일본	10.5	-13.2	-18.0	-18.8	-14.7	-11.2	-3.8	0.7	20.2
	미국	10.1	-2.6	0.2	-1.4	-2.8	-4.8	-1.6	-15.8	-4.9
	호주	3.8	-22.5	-15.2	-20.4	-19.5	-16.2	-17.9	-22.2	-4.0
	전체	100.0	-15.6	-18.7	-17.8	-16.9	-16.1	-10.3	-10.3	-13.6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6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월세 비중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며,⁴⁷⁾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쳤으며, 가

47) 근로소득증가율(동기비, %): ('15.1/4)3.8, (2/4)1.7, (3/4)0.1, (4/4)0.9, ('16.1/4)0.3, (2/4)1.9
 월세가구 비중(%): ('15.1/4)43.1, (2/4)43.7, (3/4)45.6, (4/4)44.6, ('16.1/4)46.6, (2/4)4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19), '16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 없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6만 원으로 0.8%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변동 없음.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 없고, 실질소비지출은 0.9% 감소함.

- 곡물·유가하락으로 식료품비 및 주거·수도·광열비 등이 감소한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오락·문화, 교통 등은 지출이 증가함.⁴⁸⁾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1.9만 원으로 1.0%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2.5만 원으로 3.6%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심리가 둔화되어 소비지출이 정체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상승하며 0.7%p 하락한 70.9%를 나타냈으며,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0.7%p 상승한 29.1%를 나타냄.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51.7	427.1	441.6	430.2	437.3	455.5	430.6
	증가율	2.6	2.9	0.7	0.9	1.6	0.8	0.8
	실질증가율 ²⁾	2.0	2.3	0.0	-0.2	0.9	-0.2	0.0
처분가능 소득	금액	366.8	348.4	358.2	352.8	356.3	370.4	351.9
	증가율	3.0	3.1	0.9	0.7	1.9	1.0	1.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65.3	249.4	256.3	255.0	256.3	266.9	249.4
	증가율	0.0	0.7	-0.5	1.7	0.5	0.6	0.0
	실질증가율 ²⁾	-0.6	0.1	-1.2	0.7	-0.2	-0.4	-0.9
흑자액	금액	101.5	98.9	102.0	97.8	100.0	103.5	102.5
	증가율	11.6	9.6	4.7	-1.9	5.6	1.9	3.6
평균소비성향 ³⁾		72.3	71.6	71.5	72.3	71.9	72.1	70.9
흑자율 ⁴⁾		27.7	28.4	28.5	27.7	28.1	27.9	29.1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4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19), '16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다. 경기동향

■ 2016년 2/4분기 경기동향⁴⁹⁾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⁵⁰⁾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⁵¹⁾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100.4, 100.2를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 전환하였으나 재고순환 지표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며 전분기와 동일한 100.4를 기록함.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수출입물가비율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4를 기록함.

-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 전환한 가운데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월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액판매지수와 수입액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분기대비 0.1 상승한 100.3을 기록함.

-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가 상승하며 전월대비 0.4 상승한 10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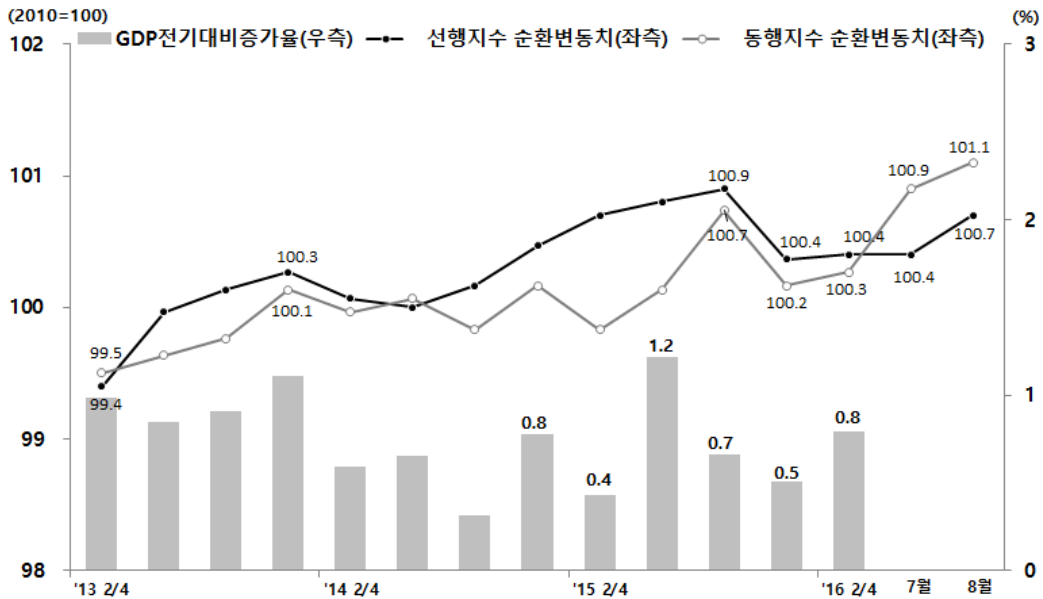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소매액판매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건설기성액과 수입액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상승한 101.1을 기록함.

49)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향후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50)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51)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2/4분기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분기대비 1.7 상승한 반면 재고지수는 1.6 하락하여 재고율⁵²⁾은 4.2%p 하락한 122.8%를 기록함.⁵³⁾

○ 7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8%p 하락한 120.5%를 나타냄.

- 7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함.⁵⁴⁾

○ 8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120.6%를 나타냄.

- 8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1.8%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석유정제, 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이 줄어 1.7% 감소함.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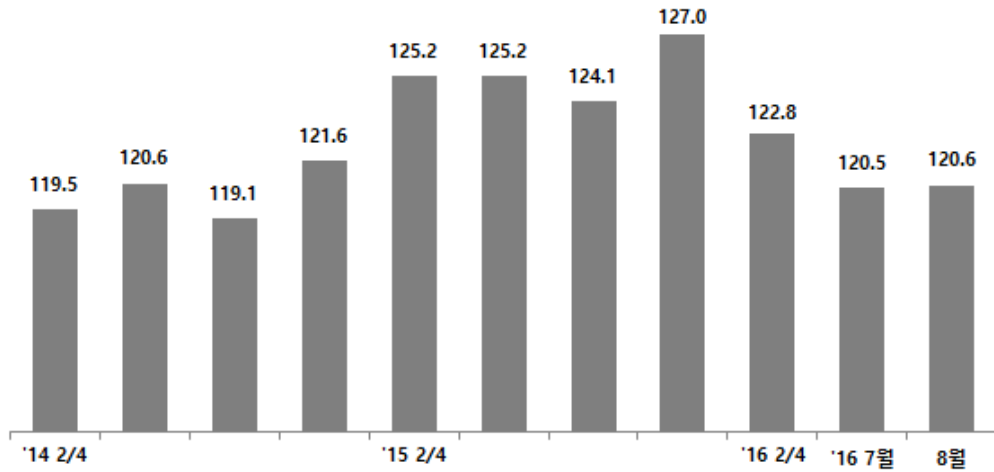
52)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3) 2016년 4월 ~ 2016년 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54) 통계청 보도자료(2016. 8. 31), “2016년 7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5)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30), “2016년 8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6년 3/4분기 국고채(3년 만기)와 회사채(3년 만기, AA-) 평균 금리는 각각 1.26%, 1.67%로 2016년 2/4분기(국고채 1.42%, 회사채 1.88%)보다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가 심화됨.
- 2016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21.4원으로 전분기(1,163.2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42.56으로 전분기(1,979.91)대비 상승함.
- 2016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7,962.42로 전분기(18,941.43)대비 하락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10, 0.91로 역시 전분기(주가이익률 12.95, 주가자산비율 0.98)대비 하락함.

〈금리〉

- 2016년 3/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표 29〉 참고).
 - 2016년 9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중국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미약한 개선 움직임을 고려함.
 -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국내 경제의 경우 내수의 개선 움직임, 실업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2016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9bp 하락한 1.35%임(〈표 29〉 참고).
 - 7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6%, 8월과 9월은 각각 1.35%, 1.34%로 매월 소폭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분기대비 16bp 하락한 1.26%임(〈표 29〉 참고).
 - 7월 국고채 금리는 브렉시트 결정의 영향에 따른 주요 국채금리 하락, 미 연준의 금리

- 인상 지연 가능성 등으로 6월 평균 금리 1.33%보다 12bp 하락한 1.22%를 기록함.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미국채(10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금리보다 2bp 상승한 1.24%를 나타냄.
 - 9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⁵⁶⁾에 따라 전월대비 7bp 상승한 1.31%임.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5 3/4	2015 4/4	2016 1/4	2016 2/4	2016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50	1.50	1.25	1.25	-	-1.50
CD(91일)	1.63	1.61	1.65	1.54	1.35	-0.19	-1.80
국고채(3년)	1.72	1.70	1.53	1.42	1.26	-0.16	-1.86
회사채(3년, AA-)	1.98	2.07	2.01	1.88	1.67	-0.21	-2.2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26	0.37	0.47	0.46	0.41	-0.05	-0.42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6년 3/4분기 평균 1.67%로 전분기대비 21bp 하락함 (〈표 29〉 참고).
- 7월, 8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1.6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월은 1.70%로 전월대비 5bp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5bp 줄어든 평균 41bp임.

〈환율〉

- 2016년 3/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41.8원 하락한 평균 1,121.4원을 기록함(〈표 30〉 참고).
-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사드배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위안화 절상⁵⁷⁾에 따른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등의 영향으로 6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70.5원보다 하락한 1,144.1원을 기록함.

56)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는 51.5로 예상치인 50.4를 상회하였고, 우리나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예상치보다 0.8% 상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함.

57) 2016년 7월 25일 기준으로 전일에 비하여 달러대비 0.29% 절상함.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2분기 GDP 부진,⁵⁸⁾ 영란은행 통화완화정책,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⁵⁹⁾ 등의 영향으로 7월보다 32.4원 하락한 1,111.7원이었음.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국내 지진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미국 경제지표 부진,⁶⁰⁾ 미연준의 정책 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 평균 환율보다 소폭 하락한 1,107.5원을 기록함.

〈표 30〉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67.8	1,157.7	1,201.4	1,163.2	1,121.4	1,144.1	1,111.7	1,107.5
엔/달러	122.2	121.5	115.3	108.2	102.4	104.1	101.3	101.8
달러/유로	1.112	1.095	1.103	1.129	1.116	1.106	1.121	1.121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3/4분기 달러화는 엔화대비 약세, 유로화대비 강세를 보여 엔/달러, 달러/유로 평균 환율이 모두 하락함(〈표 30〉 참고).

- 7월 엔/달러 환율은 위안화 절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하락한 104.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진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여 1.106달러를 기록함.
- 8월에는 미국 2분기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과 영란은행의 통화 완화정책의 영향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1.3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한 1.121달러를 나타냄.
- 9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101.8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1.12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58) 미국 2분기 GDP는 1.2%로 시장예상치인 2.6%를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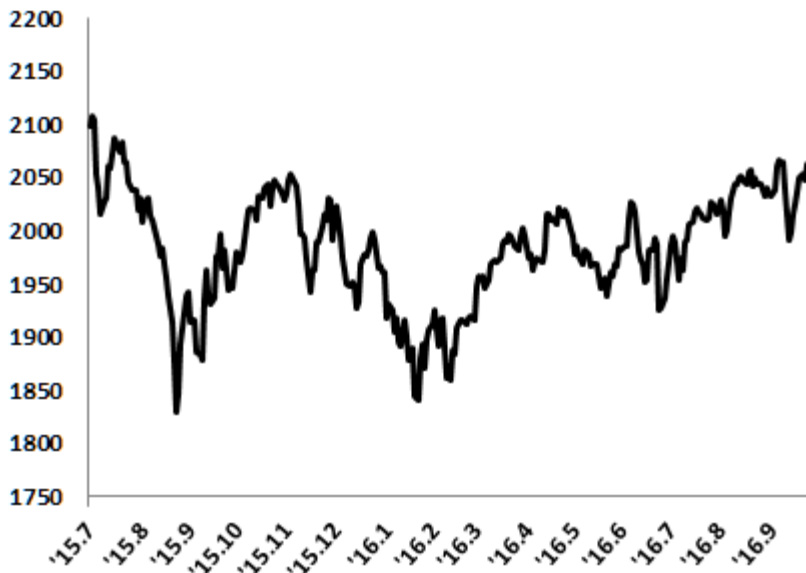
59) S&P는 8월 8일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함.

60) 미국 2분기 생산성확정치가 연율기준으로 전기대비 0.6% 하락하였으며, 연속 3분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가〉

- 2016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79.91보다 상승한 평균 2,042.56임(〈그림 3〉 참고).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미국 다우지수 상승⁶¹⁾ 등의 영향으로 6월 평균주가지수 1,977.03보다 상승한 2,002.48을 나타냄.
 - 8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36.66으로 외국인 순매수 지속,⁶²⁾ S&P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미국 증시 상승⁶³⁾ 등의 영향으로 7월에 비해 상승하였음.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42.56으로 외국인 매수세 지속,⁶⁴⁾ 미국 정책금리 동결, 일본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3〉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61) 2016년 7월 13일 18,372.12로 최고치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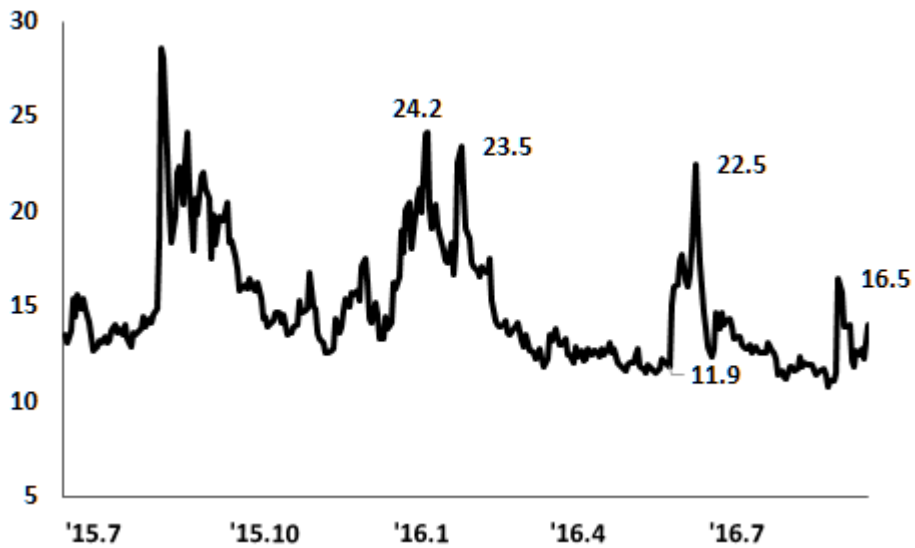
62) 8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7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보임.

63) 2016년 8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다우지수 18,635.05, S&P500지수 2,190.15, 나스닥지수 5,262.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64) 9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8개월 연속 순매수세임.

- 2016년 3/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6월 브렉시트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지난 9월 12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4〉 참고).

〈그림 4〉 변동성지수(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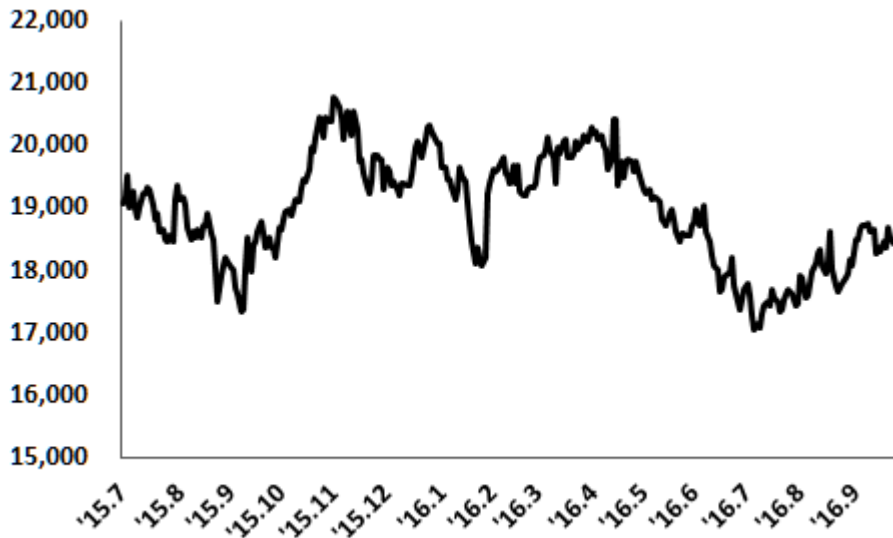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6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7,962.42로 전분기 평균 18,941.43보다 하락함(〈그림 5〉 참고).

〈그림 5〉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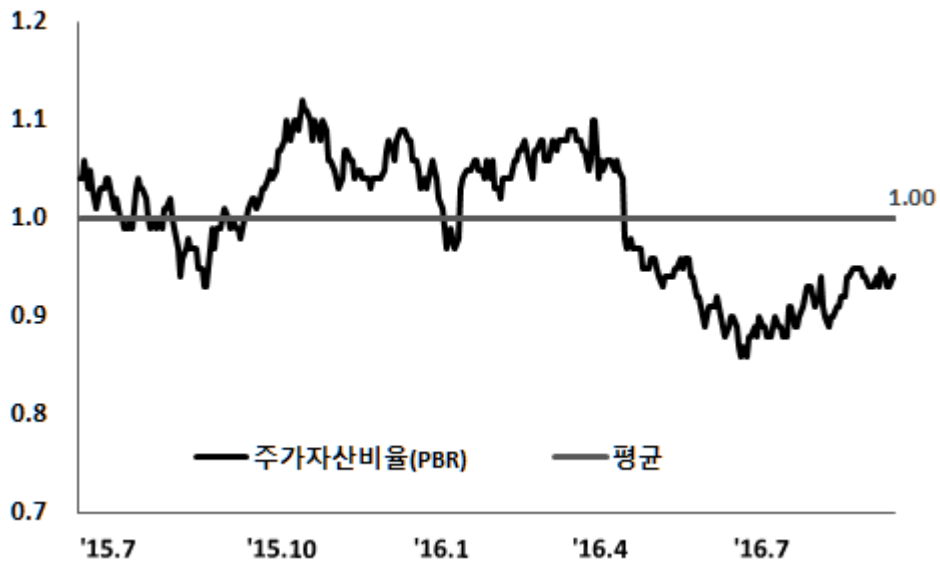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 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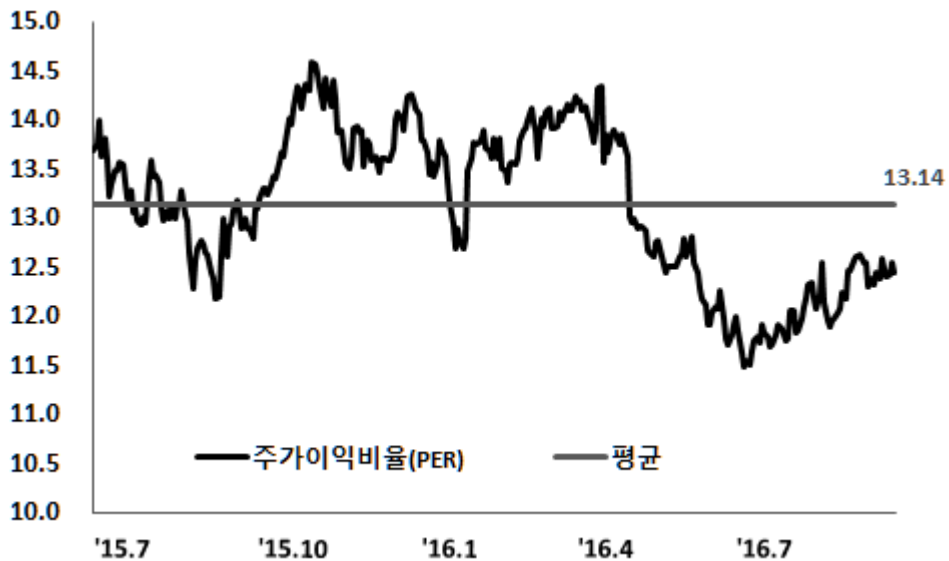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BR)과 주가자산비율(PER)은 각각 12.10과 0.91로 2/4분기 평균인 12.95와 0.98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6〉 참고).
- 7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1.76, 0.88로 6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12.22)과 주가자산비율(0.92)에 비하여 하락함.
 - 8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10과 0.91로 7월대비 상승함.
 - 9월 평균 보험주가이익률과 주가자산비율은 각각 12.49, 0.94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6〉 보험 주가이익률(PBR)



주: 직선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7〉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